

KLI 고용·노동 리포트

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

2011. 8. 30 | 통권 제4호(2011-04)|

상용직 근로자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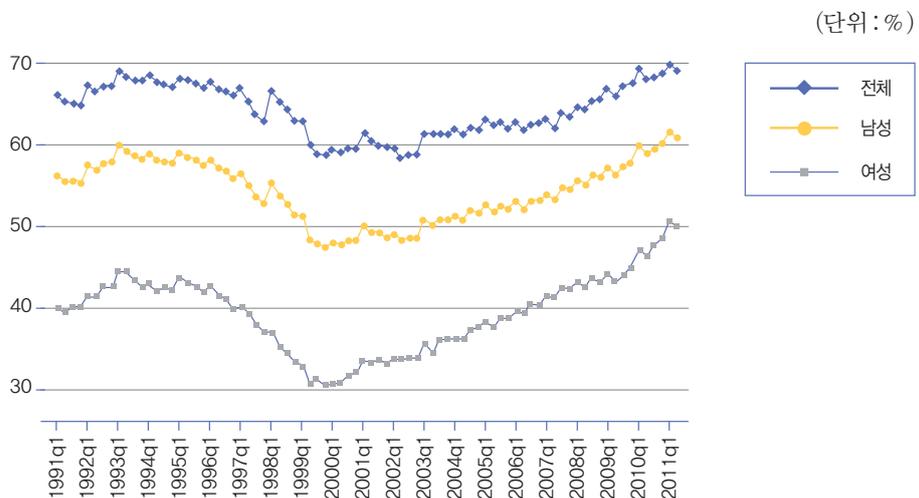
[요약]

- 지난 몇 년간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, 분석 결과 상용직 증가의 중요한 원인은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그 중에서도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- 이러한 요인들은 남성 상용직 증가에 대해서는 강한 설명력을 보였지만, 여성 상용직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이 남성보다 복잡한 것과 함께 여성 상용직 일자리의 경우 남성과 달리 좋지 않은 일자리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여성 상용직 일자리 연구결과는 고용의 질이 높을수록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높고, 고용의 질이 낮을수록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.
- 상용 비정규직의 증가, 임금이 높지 않은 영역에서의 상용직 확대와 관련해 임시 정규직과 일용 비정규직의 지속적 축소의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.

-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1998년 급락한 이래 2000년 47.9%까지 하락했으나 2002년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.
 - 2010년 상용직 비중은 연평균 59.4%까지 상승했는데, 이는 통계청 KOSIS에서 관련 통계가 이용가능한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.
- 상용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음.
 - 황덕순(2010)의 연구는 이 영역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.
 - 이 연구에 따르면, 상용직 증가는 경기순환과는 관계가 없는 추세 자체의 증가여서 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음.
 - 또한 노동경제학에서 노동수요측 요인들로 간주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20~30%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음.

- 이는 전 산업, 전 직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 관리방식 변화가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됨.
 - 다만,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극심한 고용침체가 있었던 2009년은 사업체 규모간 분포변화가 상용직 증가와 관련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음.
 -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변화는 상용직 증가의 시점과 맞지 않아 중요한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음.
- 전 산업, 전 직종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현상이라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가 원인일 수 있음.
 - 노동경제학에서 산업과 직종은 노동수요측 요인으로, 학력과 연령은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구분됨.
 - 고학력자의 증가가 상용직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.

[그림 1]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추이(분기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- 취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경제위기 전인 1996년 20.2%에서 2010년 38.9%로 증가한 반면,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같은 시기 35.7%에서 20.7%로 급감하였음.
 - 고학력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보다 상용직 일자리 선호가 월등히 높으므로, 저학력자가 많을 때와는 시장에서 생성되는 일자리의 특성이 다를 것임.
 - 반대로 주로 고연령층에 많은 고졸 미만 저학력자는 임시·일용직 취업 비중이 높으므로, 이들의 은퇴는 임시·일용직 규모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.
- 고학력화, 연령구조 변화가 상용직 비중 증가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Oaxaca 분해(decomposition)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.
 - 2003년 8월과 2010년 8월의 상용직 비중 차이의 48.1%를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가 설명하여 노동공급측 요인에서 나타난 변화가 상당한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음(표 1 참조).
 - 특히 남성에 국한할 경우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 전체 상용직 증가의 61.9%를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가 설명함.
 - 이 중 학력의 분포변화는 전체 상용직 증가의 절반에 가까운 47%를 설명하여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.
- 2003년 8월과 2007년 8월을 비교하면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는 94.9%로 거의 모두를 설명하며, 학력 분포에만 국한할 경우 약 70%를 설명함.
 - 기간제법 발효와 내수침체가 있었던 2006년 8월과 2008년 8월 사이의 상용직 증가는 73.3%를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가 설명함.
 - 국제금융위기가 있는 2008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의 상용직 증가에 대해서는 학력과 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이 27%로 떨어졌지만, 회복기에 들어간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을 비교해보면 52%로 증가하였음.
 - 이와 같이 볼 때 급격한 경기변동이 있었던 2009년을 전후한 1~2년을 빼면 나머지 시기에 대해서는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가 상용직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아도 무방함.
 - 특히 노동공급측 요인 중에서도 학력의 분포변화, 즉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그러나 여성에게서는 학력과 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이 크지 않았음.
 - 남성과 달리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는 어떤 시기를 보아도 상용직 변화의 20%도 설명하지 못했음(표 1 참조).
 - 다만, 여성은 남성보다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 중 학력 분포변화가 훨씬 중요함.

〈표 1〉 상용직 증가 원인에 대한 Oaxaca 분해 결과

		전체		남성		여성		
상용직 증가	2003. 8 ~2010. 8	전체 차이	-0.0840		-0.0675		-0.1131	
	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-0.0404	48.1%	-0.0418	61.9%	-0.0149	13.2%
		분포 외 차이 설명력	-0.0436	51.9%	-0.0257	38.1%	-0.0983	86.9%
	2003. 8 ~2007. 8	전체 차이			-0.0253		-0.0636	
	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		-0.0240	94.9%	-0.0097	15.3%
		분포 외 차이 설명력			-0.0012	4.7%	-0.0538	84.6%
	2006. 8 ~2008. 8	전체 차이			-0.0262		-0.0311	
	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		-0.0192	73.3%	-0.0055	17.7%
		분포 외 차이 설명력			-0.0070	26.7%	-0.0256	82.3%
	2008. 8 ~2010. 8	전체 차이			-0.0296		-0.0342	
	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		-0.0080	27.0%	0.0017	-5.0%
		분포 외 차이 설명력			-0.0216	73.0%	-0.0359	105.0%
	2010. 3 ~2011. 3	전체 차이			-0.0075		-0.0372	
	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		-0.0039	52.0%	-0.0019	5.1%
		분포 외 차이 설명력			-0.0036	48.0%	-0.0352	94.6%

이를테면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사이 상용직 증가에 대한 학력 분포변화의 설명력은 약 25%로 전체 분포변화의 설명력인 13.2%보다 오히려 커짐.

-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학력과 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최종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시장에 들어가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남성과 다르게 연령,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등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임.
- 또한 비교적 나쁜 일자리일 가능성이 적은 남성 상용직과 달리 여성 상용직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일자리이고, 정규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여성 일자리 특성상 좋지 않

은 일자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.

- 만약 중간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상용직 일자리로 국한해 분석한다면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- 이상의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〈표 2〉에서는 집단별로 Oaxaca 분해를 해보았음.
 - 여성에게서 결혼은 노동시장 이탈과 관련된 중요한 단계이며, 그때 이탈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유년기에 있는 30대에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.
 - 이를 감안해 미혼자로 국한해 분석할 경우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가 상용직 증가를 많이 설명했으며(47.1%), 젊은 연령층에서 보다 설명력이 높았음(35세 미만 37.8%).

〈표 2〉 여성 집단별 Oaxaca 분해 결과 :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상용직 비중 차이

		미 혼		기 혼		35세 미만		35~44세		45세 이상	
상용직	전체 차이	-0.0995		-0.1502		-0.1406		-0.1873		-0.1162	
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-0.0469	47.1%	-0.0086	5.7%	-0.0531	37.8%	-0.0597	31.8%	-0.0170	14.6%
	분포 외 차이 설명력	-0.0526	52.9%	-0.1416	94.3%	-0.0875	62.2%	-0.1277	68.2%	-0.0991	85.4%
상용 정규직	전체 차이	-0.0491		-0.0925		-0.0932		-0.1291		-0.0401	
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-0.0414	84.4%	-0.0110	11.9%	-0.0442	47.4%	-0.0546	42.3%	-0.0228	56.8%
	분포 외 차이 설명력	-0.0077	15.6%	-0.0815	88.1%	-0.0490	52.6%	-0.0745	57.7%	-0.0173	43.2%

〈표 3〉 임금수준을 고려했을 때의 여성 Oaxaca 분해 결과 : 2003년 8월과 2010년 8월 상용직 비중 차이

		여성	
중위임금 이상 상용직	전체 차이	-0.058	
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-0.036	62.6%
	분포 외 차이 설명력	-0.022	37.4%
중위임금 미만 상용직	전체 차이	-0.055	
	학력·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	0.021	-38.4%
	분포 외 차이 설명력	-0.077	138.4%

- 또한 비정규직을 제외한 상용 정규직에만 국한해 볼 경우 학력과 연령 분포변화의 설명력은 보다 증가했음. 이를테면 미혼자에서 상용직 증가의 84.4%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임금수준별로 보면 중위임금 이상에서 발생한 상용직 증가의 62.6%를 학력과 연령의 분포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중위임금 미만 일자리에서 발생한 상용직 증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(표 3 참조).
- 이상의 분석은 노동공급측 요인의 분포변화가 상용직 비중 증가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.
- 이 중에서도 학력의 분포변화, 즉 고학력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. 고학력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노동시장의 트렌드이므로 상당기간 상용직 비중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함.
- 여성 상용직 증가 분석결과로부터 추론할 때 고용의 질이 높을수록 고학력화가 높은 설명력을 갖지만, 고용의 질이 낮을수록 고학력화의 설명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.
- 이 또한 상용직 증가 원인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인데,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상용직 증가와 관련해 추가적인 원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.

상용직 증가와 관련해 기존에 주목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설들과 향후 분석 과제

- 2003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할 경우 상용직 중 고임금자(중위임금 3/2 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) 비중은 46.5%에서 42.6%로 축소된 반면, 상용직 중 저임금자 비중(중위임금 2/3 미만을 지급하는 일자리)은 8.6%에서 9.6%로, 고임금도 저임금도 아닌 중간임금자 비중은 44.9%에서 47.8%로 증가함.
 - 상용직 중 고임금자 비중이 축소된 것은 증가된 상용직 일자리가 모두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의미임.
- 임시·일용직은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만, 2003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할 때 임시직 중 저임금자 비중은 42.6%에서 47.3%로 증가했고, 일용직 중 저임금자 비중은 58.7%에서 61.0%로 증가함.
 - 이는 임시·일용직이 축소되고 있지만 저임금 임시·일용직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나 축소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점을 보여줌.
 - 중간임금이나 고임금인 임시·일용직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·일용직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임.
 - 다만, 고임금인 임시·일용직 일자리는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음.
 - 그렇다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저임금

이 아닌 주로 중간임금을 지급하는 임시·일용직 일자리들이 상용직 또는 상용 비정규직 일자리로 변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.

- 종사상 지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정의와 많은 부분에서 겹침. 따라서 상용직 증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려면 통계청에서 종사상 지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야 함.
 -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상용직, 1년 미만이면 임시직,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함.
 - 계약기간 없이 고용되었으면 상용직으로 분류하지만, 퇴직금 및 성과급 등 제수당을 받을 수 없거나 회사의 인사관리 적용대상이 아닌 형태로 고용된 경우 임시직으로 분류함.
 - 이로 인해 상용직 안에도 계약기간 1년인 파견·용역직 등이 있을 수 있어 상용 비정규직 범주가 존재하고, 임시직 안에도 고용계약기간 없이 고용된 정규직 범주가 존재함.
-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교차해 추이를 살펴보면, 남성의 경우 2002년 8월에서 2004년 8월 사이에는 상용 비정규직이 급증했지만, 그 이후로는 상용 정규직 중심으로 상용직이 증가했음(표 4, 표 5 참조).

〈표 4〉 남성 종사상 지위 × 비정규직 여부별 추이

(단위:천 명, %)

		상용 정규직	상용 비정규직	임시 정규직	임시 비정규직	일용 정규직	일용 비정규직	전체
8 월 조 사	2002. 8	4,324 (52.4)	558 (6.8)	1,666 (20.2)	511 (6.2)	329 (4.0)	869 (10.5)	8,258
	2003. 8	4,433 (53.5)	671 (8.1)	1,457 (17.6)	653 (7.9)	107 (1.3)	963 (11.6)	8,283
	2004. 8	4,296 (50.6)	1,057 (12.4)	1,355 (16.0)	750 (8.8)	106 (1.2)	926 (10.9)	8,489
	2005. 8	4,535 (52.2)	938 (10.8)	1,305 (15.0)	771 (8.9)	106 (1.2)	1,026 (11.8)	8,682
	2006. 8	4,656 (52.3)	936 (10.5)	1,394 (15.7)	784 (8.8)	153 (1.7)	985 (11.1)	8,909
	2007. 8	4,803 (52.0)	1,121 (12.1)	1,396 (15.1)	809 (8.8)	130 (1.4)	977 (10.6)	9,235
	2008. 8	5,186 (55.4)	940 (10.0)	1,318 (14.1)	796 (8.5)	163 (1.7)	964 (10.3)	9,366
	2009. 8	5,464 (57.4)	927 (9.7)	1,222 (12.8)	884 (9.3)	147 (1.5)	870 (9.1)	9,515
	2010. 8	5,677 (58.0)	1,010 (10.3)	1,313 (13.4)	794 (8.1)	144 (1.5)	845 (8.6)	9,783
3 월 조 사	2007. 3	4,570 (50.2)	1,099 (12.1)	1,467 (16.1)	802 (8.8)	101 (1.1)	1,067 (11.7)	9,106
	2008. 3	5,002 (54.1)	967 (10.5)	1,262 (13.7)	878 (9.5)	131 (1.4)	998 (10.8)	9,237
	2009. 3	5,309 (57.0)	878 (9.4)	1,226 (13.2)	833 (8.9)	147 (1.6)	915 (9.8)	9,307
	2010. 3	5,602 (58.7)	983 (10.3)	1,263 (13.2)	774 (8.1)	122 (1.3)	797 (8.4)	9,541
	2011. 3	5,721 (58.2)	1,134 (11.5)	1,210 (12.3)	808 (8.2)	144 (1.5)	807 (8.2)	9,825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- 여성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02년 8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 모두 증가해 왔음.
- 추가 분석을 해보면 상용 정규직은 전문가, 사무직종에서 많이 증가했고, 상용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직에서 많이 증가했음.
 - 또한 상용 정규직은 모든 업종에서 고루 증가했다면, 상용 비정규직은 사업서비스 같은 몇 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음.
 - 임금이 낮은 상용직 증가는 특정 산업의 고용 증가와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방향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함.
- 임시직 비중 축소에서 임시 정규직 감소가 큰 역할을 함.
 - 임시 정규직은 계약기간 없이 고용되었으나 공식적인 인사관리의 범위 밖에 있는 고용형태로서 제도가 여러 역할을 한다면 정의상 있기 어려운 고용형태임.
 - 임시 정규직은 전 산업, 전 직종,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상용직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.
 - 상용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많이 증가했지만, 원래 임시 정규직이 많이 분포하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보다 더 많은 규모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은 이런 추론의 가능성을 뒷받침함.

〈표 5〉 여성 종사상 지위 × 비정규직 여부별 추이

(단위:천 명, %)

		상용 정규직	상용 비정규직	임시 정규직	임시 비정규직	일용 정규직	일용 비정규직	전체
8 월 조 사	2002. 8	1,726 (29.9)	244 (4.2)	1,750 (30.3)	878 (15.2)	394 (6.8)	780 (13.5)	5,772
	2003. 8	1,751 (29.8)	382 (6.5)	1,643 (28.0)	1,119 (19.1)	152 (2.6)	819 (14.0)	5,866
	2004. 8	1,792 (29.4)	556 (9.1)	1,489 (24.4)	1,219 (20.0)	153 (2.5)	887 (14.6)	6,096
	2005. 8	1,878 (29.9)	575 (9.1)	1,498 (23.8)	1,304 (20.8)	163 (2.6)	868 (13.8)	6,286
	2006. 8	1,983 (30.8)	667 (10.4)	1,532 (23.8)	1,308 (20.3)	175 (2.7)	777 (12.1)	6,442
	2007. 8	2,128 (32.0)	711 (10.7)	1,540 (23.2)	1,299 (19.5)	183 (2.8)	785 (11.8)	6,647
	2008. 8	2,312 (34.3)	669 (9.9)	1,488 (22.1)	1,368 (20.3)	191 (2.8)	709 (10.5)	6,737
	2009. 8	2,365 (34.0)	716 (10.3)	1,343 (19.3)	1,668 (24.0)	184 (2.6)	689 (9.9)	6,964
3 월 조 사	2010. 8	2,595 (35.7)	868 (11.9)	1,477 (20.3)	1,539 (21.2)	156 (2.2)	630 (8.7)	7,265
	2007. 3	2,057 (31.0)	706 (10.7)	1,612 (24.3)	1,307 (19.7)	151 (2.3)	792 (12.0)	6,625
	2008. 3	2,300 (34.0)	629 (9.3)	1,486 (22.0)	1,397 (20.7)	176 (2.6)	768 (11.4)	6,756
	2009. 3	2,377 (35.1)	610 (9.0)	1,470 (21.7)	1,412 (20.9)	173 (2.6)	726 (10.7)	6,768
	2010. 3	2,495 (35.3)	846 (12.0)	1,482 (20.9)	1,458 (20.6)	155 (2.2)	640 (9.0)	7,075
	2011. 3	2,723 (37.6)	964 (13.3)	1,336 (18.5)	1,428 (19.7)	159 (2.2)	629 (8.7)	7,239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- 물론 제도화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용직화된 임시 정규직은 주로 고학력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 임시 정규직의 축소가 제도화를 통한 상용 정규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, 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지는 경찰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, 추가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음.

■ 일용 비정규직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, 특히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일

용직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- 모든 연령대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비경험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, 상용 비정규직이나 임시 비정규직, 일일근로 등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.

성재민 (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)
seongjm@kli.re.kr / Tel. 02-3775-5580

※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.kli.re.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

발행인: 김승택 / 편집인: 장흥근 / 편집·교정: 정 철
150-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
Tel : 02-3775-5514 / Fax : 02-3775-0697 / www.kli.re.kr